

‘우주경제 도시’ 순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총력

시, 우주항공청 방문...정책 전략적 거점 설명 배후산업·교통인프라·정주여건 등 완비 장점

순천시가 우주항공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국가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개선과 예산,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의 핵심기관으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진흥원 설립이 공식적으로 반영됐다.

현재 고흥군과 대전, 경남 사천 등 주요

거점들이 우주항공 관련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남해안우주산업벨트의 중심도시’라는 차별화된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관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을 필두로 누리호, 차세대발사체사업에 더해 위성(SAT) 개발, 방위산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지역 우주항공산업의 확장성에



순천시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입지 후보지로 제시한 연향동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순천시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행정·지원 인프라가 미흡했던 전남권에 국가차원의 신규 우주항공 행정 거점을 구축, 지역간 균형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시

의 입장이다.

순천은 우주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확장성을 뒷받침할 배후산업과 교통인프라를 고루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관련 소재·부품 기업들이 있어 부품 조달과 기관 협업이 용이하며, 발사체·위성 산업의 신속한 공급망 구축에 강점을 지닌다.

시는 지난 2023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우주항공산업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과 정주여건을 동시에 갖춘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강점을 토대로 대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경남 사천(우주항공청)·순천(우주항공산업진흥원)으로 이어지는 국가 우주항공 행정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입지계획 또한 구체적이다. 순천시는 우주항공청의 2028년 진흥원 구축 목표에 맞춰 연향동 일원을 후보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약 7만㎡ 규모의 부지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은 물론 주거·문화·숙박 등 정주권 직점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에 해당기관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전망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우주항공 정책과 산업 일선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다”며 “순천은 산업·정주·환경·관광이 균형을 이룬 준비된 도시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최적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흥군이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저장성 장흥현을 방문해 글로벌 차(茶) 박람회 참석하여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사진제공=장흥군

장흥, 중국 ‘차 박람회’ 참석...장흥현과 차 산업 협력 확대

우호교류 회에서 농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 교류 강화 다짐

장흥군이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저장성 장흥현과 차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9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 대표단은 최근 중국 장흥현을 방문해 ‘2026 비우 제다대회 경진 합산·다성 공경 글로벌 연동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장흥현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차(茶) 산업을 비롯

한 농업·문화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장흥현 정화 현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우호 교류 회의를 갖고 기념품을 교환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선산호와 차원과기유한공사, 봉직식품유한공사, 텀산산업원 등 지역

산업시설을 방문해 차 산업과 농식품 가공 산업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의 핵심 행사인 글로벌 차 박람회 제다대회와 연계 행사에 참석해 장흥현의 차 문화와 산업 발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양 도시 간 차 산업 및 농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장흥군과 장흥현은 2015년 우호협력 체결 이후 다양한 문화·경제 교류를 이어 오며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장흥현 대표단이 전남산 장흥 물

축제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등에 꾸준히 방문하는 등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국제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gwangnam.co.kr

고흥, ‘청년 공공임대주택’ 45호 공급 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활용...“정주 환경 확충”

고흥군은 최근 옛 점암초등학교 신안분교 부지에 조성한 ‘고흥 청년 공공임대주택’ 준공식을 진행했다.

준공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류계동 고흥군의회 의장, 송형근·박선준 전남도의원, 정찬조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고흥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인구 10만 달성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임주 규모는 총 45세대로 원룸형(26.13㎡) 29세대, 투룸형(59.4㎡) 16세대다. 모든 세대에 시스템 에어컨, 싱크대, 냉장고, 블라인드 등을 기본으로 갖춰 청년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와 함께 입주민 편의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1동을 별도로 조성해 관리사무소, 코인 세탁시설, 회의실 등을 갖췄으며, 구 점암초등학교 신안분교의 추억을 담은 공간을 함께 마련해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계승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청년 공공임대주택 준공은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확충해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권역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스마트 영농빌리지와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313호를 추진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 청년 공공임대주택 전경

곡성, ‘취업 도전’ 지원 공모 선정 구직단념 청년 맞춤형 프로 운영

곡성군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여원을 확보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취업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 군은 미래산업기술포럼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곡성읍 소재인 비발인덕25에서 진행되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역맞춤형 등 6가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52명으로,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1개월) 12명, 중기(3개월) 26명, 장기(5개월) 14명으로 나눠진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

보성, 건강·힐링 걷기 문화 확산 앞장

생활권 중심 12곳 ‘맨발산책길’ 조성 본격화

보성군이 주민 생활권 중심에 읍면별 1개소씩 ‘맨발산책길’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의 이용 수요가 높은 생활권 인근에 맨발 걷기 공간을 조성해 일상 속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힐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총 21개 후보지를 선정받아 현장 조사와 입지 여건, 접근성, 이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12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구간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노

동면 어등산, 미력면 용지등 보성강둑, 겸백면 소재지 대나무숲, 울어면 문화체육센터, 북내면 주암호변, 문덕면 투구봉, 화천면 울포해수욕장 골출렁, 응치면 구 응치초등학교 등 8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하반기에는 보성을 동운천 생태공원, 조성면 은림저수지 등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황토 포설과 세죽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노면 정비, 잡목 제거,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별교읍 칠동천 체육공원 인근과 득량면

득량면 조양마을 앞 2개소는 현장 조사와 설계, 사업비 확보 등을 거쳐 2027년 도시숲 공모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맨발 걷기는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 등 건강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며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힐링 공간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에는 보성을 미세먼지저단층(2.1km), 관주산(3.6km), 망제산(2.1km) 등에 맨발산책길이 조성됐으며, 별교읍 부용산 일원에는 5.7km 길이의 산책길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imth66@gwangnam.co.kr

광양, 외국어 통역자원 수강생 모집 20일까지 접수...4~7월 영어 등 4개 언어 교육

광양시는 국제교류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 통역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국내 통·번역 대학원 연계 시민 국제교류 통역자원 육성 교육 수강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무료이며 수료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향후 광양시 국제교류 행사와 통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국제교류 현장 중심의 실무 통역 전문 교육과정으로, 국내 통·번역 전문대학원인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해 운영된다.

교육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 과정으로 운영된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 공통 통역 소양 교육과 언어별 실습을 병행한다.

공통 과정에서는 통역 기본 태도와 예절, 국제 의전 등을 교육하며, 언어별 실

습 과정에서는 광양시 주요 현창과 국제교류 행사 상황을 활용한 통역 실습을 진행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무료이며 수료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향후 광양시 국제교류 행사와 통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lachica@korea.kr)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매·우호도시 교류 확대와 국제행사 증가로 전문 통역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 실습을 통해 시민이 국제교류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통역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